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인천은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인터뷰 :

인천시 파견 중국공무원들과의 만남



I/D/I/소/식



「인천항 배후단지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정책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고진섭)가 주최하고 인천항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식)...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포럼] '제1차 그린인프라 포럼 워크숍' 개최 (7.27):국토연구...

Zoom INcheon



부평구-걷고 싶고 살고 싶은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부평구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후루다오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도시동향



중국 서부 지역의 중심 "중칭(重慶)"
중칭은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중국 서부지역의 중요한 관문이자 ...

IDI연구



인천지역 해공(Sea&Air)복합운송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2001년 이후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산업화와 교역규모 확대에 따라 중...

인천지표

연도	항공사	선박	항공	해상
2008	1,000	1,000	1,000	1,000
2009	1,000	1,000	1,000	1,000
2010	1,000	1,000	1,000	1,000
2011	1,000	1,000	1,000	1,000
2012	1,000	1,000	1,000	1,000
2013	1,000	1,000	1,000	1,000
2014	1,000	1,000	1,000	1,000
2015	1,000	1,000	1,000	1,000
2016	1,000	1,000	1,000	1,000
2017	1,000	1,000	1,000	1,000

인천-중국 공·항만간 연계 지표
-인천을 기항하는 카페리항로는 2007년 현재 10개항로가 있으며 모두...



어수선한 공사판을 들여다보고 싶은 건 거기에 우리네 삶의 활기가 물씬 느껴지기 때문이다. 얼마 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우리 대학 건설 현장을 찾아 송도에 갔다. 넓은 붉은 황토 벌판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공사판을 보며 순간 머릿속에 10여 년 전 상하이 포동이 떠올랐다.

우리는 90년대 중반 어수선하기 짝이 없던 상하이 포동의 바오산 강철 바로 옆에 친환경 제지공장을 짓고 있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출퇴근하다시피 동분서주하며 4년여의 천신만고 끝에 공장이 완공되었다. 한·미·중 3국이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한 이 합작회사는 1996년 공장이 준공되자마자 중앙 경공업부와 상하이시 정부, 그리고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상하이시의 황쥬(黃菊) 당서기는 공장을 둘러보고 '중국 공무원들의 연수코스'로 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려 서울을 방문하기도 하고, 중앙정부 수석 부총리로 지내다가 2년 전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참여하면서 5년여의 중국 주재기간 중 나는 우수 외자기업 유치에 대한 중국 리더십의 관심과 열정을 읽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인천시가 중국에 관심을 갖고 경제특구 아이디어를 처음 구상한 것은 지금부터 23년 전인 1986년이었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공식 발표된 것은 6년 전인 2003년이다. 변화를 거듭하는 중국시장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무성하면서도 그동안 인천의 대응 속도는 '만만다'였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중국시장에 대한 대응이 뒤늦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국내 주요 지방들과 비교해보아도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이 움직여준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중국의 발전을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상반된 양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중국 활용론'이다.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서 보듯이,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해온 중국이 향후 언젠가는 미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터이니 중국의 활용이야 말로 우리의 활로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가짜론'이다. 경직된 공산당 일당독재와 부정부패의 만연, 확대일로에 있는 빈부격차, 끝없이 이어지는 짝퉁과 불량식품, 끈질긴 6.4 천안문 사태 또는 티베트 사태, 대만문제의 뒤숭숭한 소문들, 미국 등 서방과의 미묘한 대립, 그리고 우리의 신정을 굶는 동북공정 등을 볼 때, 중국은 머지않아 지난 60년간 이어져온 공산당 독재체제가 흔들리고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중국 너무 좋아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중국에 대한 이런 양단의 견해가 마치 미국에 대한 '친미와 반미'의 갈등처럼 대립각을 세우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만 이런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도 '중국가짜론'과 '중국 발전운명론'이 맞서고 있기는 하다. 비록 '중국의

결산은 분명 이라는 엔터 기인적의 선애가 업노적 내제이기는 아시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의 핵심지역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우리나라다. 그중에서도 중국시장의 중심지인 동부해안지역들과 가장 가까운 도시는 인천이다. 인천이 경제특구를 처음 착수하자 제일이라는 미국의 개발회사가 나섰고, 지금은 미국의 여러 대학들이 송도에 진입채비를 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한반도 시각은 치밀하게 전략적이고, 동시에 상업적이다. FTA가 그렇고, 저작권이양이 그렇다.

이제 한반도는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닌 신지정학적 경제지대로 서서히 변모하는 초입에 와있다. 중국이 망한다면 우리는 그 직접 충격에 빠지게 된다. 중국시장이 흥청거린다면 우리는 더불어 바쁘게 돌아갈 것이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저 부화뇌동하는 것은 최악이며 금물이다. 모든 일의 출발점은 부단한 점검을 통한 자기확신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중국에 관심을 갖고 경제특구 아이디어를 처음 구상한 것은 지금부터 23년 전인 1986년이었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공식 발표된 것은 6년 전인 2003년이다. 변화를 거듭하는 중국시장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무성하면서도 그동안 인천의 대응 속도는 '만만다'였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중국시장에 대한 대응이 뒤늦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국내 주요 지방들과 비교해보아도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이 움직여준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인천-중국간 원활한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으로 동반발전 "앞장"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트리에' 36호에서는 인천과 중국의 활발한 인적교류 및 바람직한 동반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천시 파견 중국공무원, 미녀군단 조우지엔치우(周劍秋), 리난(李楠), 친옌(秦艷)을 만나 각국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분야 및 인적교류 방법,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Q. 현재 인천에 대한 인상은 인천 방문전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인천의 가장 큰 발전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천에 오기 전에는 단지 인천이 연안도시라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었는데, 인천에 와서 보니 환경도 훌륭하고, 공기도 맑고, 도시계획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깨끗한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났던 인천분들은 모두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발전동력을 꼽자면, 국제적 항구와 공항을 이용한 수출가공공단의 발전을 통해 비약적 경제성장의 기초를 다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시의적절한 정책과 산업조정으로 인천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서울과의 차별화를 두어 동반발전하는 인천의 전략이 주요했으며, 송도자유경제구역 개발로 투자유치는 물론 도시 포지셔닝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Q. 인천시는 향후 인천을 실버관광의 메카로 만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올해 3월 400여명의 중국 노년관광객을 초대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은 국제도시인 동시에 한국 3대 도시로서 150개의 아름다운 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리우는 강화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차이나타운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곳곳마다 중국어 표지판도 잘 정비되어 있고 밀접해 있는 자유공원은 한국의 역사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전통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동시에 중국문화까지 즐길 수 있으니 여행명소로는 훌륭한 곳이지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인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서비스가 좋아야겠지요. 이를 통해 실버관광 유치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중국의 전시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인천시 역시 이번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인천의 성장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향후 인천의 전시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신다면요?

2009 인천 도시 축전은 세계 여러 도시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축전을 통해 우수한 문화와 민속공연, 이색적인 먹거리, 현대과학기술 전시는 물론 세계환경포럼,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 세계지식포럼 등 세계적인 포럼도 많이 개최되어 인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세계속의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전을 계기삼아 인천항과 공항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항공운송업과 물류업 등의 산업은 물론 그를 통한 관광업과 서비스업 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인천의 환경적 이점을 살려 IT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Q. 인천과 중국간 원활한 인적교류를 위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천과 중국의 교류를 위해 무엇보다 시장확대를 통한 자본유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충칭시는 중국 서부 유일의 직할시로서 장강상류의 교통요지이자 도시 인구가 가장 많고 공업단지조성이 잘된 도시입니다. 에너지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여 서부개발의 중추지로 자리잡고 있고, 자량하자면 충칭시는 공업경제 발전과 투자유치를 성공을 위한 8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현재 중국은 중화학공업발전의 중요한 단계로서 충칭시의 산업경쟁력이 그와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 2) 자리적 이점과 교통요지로서의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8개의 지하철노선과 8개의 고속도로가 충칭시를 관통하고 있으며 장강 상류해운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3)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4) 금융의 중심지로서 중국 대부분의 상업은행이 충칭에 들어와 있어 상업활동에 필요한 대출과 용자가 용이합니다.
 - 5) 대도시권에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6) 중국 동부지역의 전력, 에너지, 교통, 원자재 등의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충칭지역은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 외부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다.
 - 7) 과학기술연구기관과 인재가 풍부하여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 8) 서부개발과 대개발,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일련의 우호적인 정책과 편된 푸둥개발구 등의 세금우대정책 등으로 공업소득세율이 15%에 불과해 대다수 지역의 33%에 비해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 특히 인천은 서울 부산에 이은 3대 도시로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상업도시인 송도, 무역국제관단지 등 경쟁력 있는 요소가 많은 도시라 할 수 있죠. 또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충칭과 인천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두 도시의 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 봅니다.

Q. 인천과 중국의 동반발전을 위해 제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과 중국의 바람직한 동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협력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정치, 경제, 문화, 보건, 교육, 방면 등에서 동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충칭시를 위해 새로운 발전전략인 “314”를 구상했는데요, 이는 우리 충칭시를 서부지역의 중요 성장거점이자 장강상류지역의 경제중심지, 도시농촌의 동반발전지 등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계획입니다.

또한 서부지역의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며 사회주의 농촌건설에도 일조하는 한편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탈바꿈을 통해 농민문제해결과 도시수준제고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충칭시는 향후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동반발전을 가져왔으며 무역을 통한 경제적 교류는 양국에 경제적 이득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한-중 쌍방의 무역을 통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 역시 끊임없이 증가해왔지요. 서부지역의 중추지인 충칭시와 인천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인천의 전도유망한 기업들의 충칭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진 왼쪽부터 충칭시 인민정부 공무원 조우지엔치우(周銀秋), 다롄시 인민정부 공무원 리난(李楠), 충칭시 인민정부 공무원 친옌(秦艷)

■ 대담 : 장윤정(동북아·물류연구실 책임연구원)

■ 기록 : 장순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36호에서는 인천과 중국의 활발한 인적교류 및 바람직한 동반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천시의 중국공무원, 미녀군단 조우지엔치우, 리난, 친옌을 만나 각국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분야 및 인적교류 방법,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인천항 배후단지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정책토론회
배후단지 초기개발을 통한 물동량 창출에 주력하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고진섭)가 주최하고 인천항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식)와 우리 연구원(원장 어윤덕)이 주관하는 「인천항 배후단지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 파라다이스호텔인천 사파이어홀에서 개최됐다. 어윤덕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로테르담항, 중국의 진저항 등 충분한 항만 배후단지를 보유한 선진항만들은 이를 통해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고 말하면서 인천항도 배후단지의 초기개발과 효율적인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연구원 정태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항 물동량 예측을 위한 TFT를 구성, 신뢰할만한 물동량 예측으로 중앙정부와의 대응자료가 되도록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형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백은기(인천광역시 항만공항공무국장), 연영진(인천지방해양항만청 소장), 이상원(인천광역시물류연구원 운영이사), 이흥식(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인천항 배후단지 고부가가치 창출방안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인천지역 물류 관련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사군구 공무원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박윤배 부평구청장 초청 연찬회

우리 연구원은 지난 22일 오전 9시 40분, 대강당에서 제6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박윤배 부평구청장을 초청해 강연 및 연찬회를 가졌다. 박윤배 부평구청장은 강연에 앞서 구정현황과 운영방향, 비전과 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물을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올해를 얻고 싶은 도시 조성 원년의 해로 선정해 살고 싶은 생태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예술 및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도서관 개원과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을 부평구의 자랑스러운 소개하면서 특히 부평역사박물관은 독자적 역사를 가진 전국에서 구단위 역사 박물관 중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태하천 굴포천과 공원녹지축을 연결하는 자연거도로 조성 등 문화예술과 자연환경이 함께 아우라지는 얻고 싶고 살고 싶은 부평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 미국 싱크탱크의 조직과 운영방식 한국지역 싱크탱크들에 주는 시사점 주제로 홍일표 박사(해양정책소 연구팀장, 사회학 박사) 초청 강연

우리 연구원은 지난 1일 오전 11시 1층 대강당에서 홍일표 박사(해양정책소 연구팀장, 사회학 박사)를 초청해 미국의 싱크탱크의 조직과 운영방식 한국지역 싱크탱크들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회를 마련했다. 먼저 강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싱크탱크의 개념과 미국 싱크탱크의 역사와 현황 등을 설명한 홍 박사는 자신의 저서 「세계를 이끄는 생각(중앙북스, 2008)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를 통한 한국 싱크탱크의 성공전략과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자신의 미국생활을 바탕으로 워싱턴 싱크탱크 세계를 이해하는 세가지 키워드를 밝히면서 나아가 그들의 이념적배경과 영향력은 물론 세계를 기획하는 미국의 주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해프지 재단, 아스펜 연구소 등의 역사와 구성 활동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홍일표 박사 초청 강연은 한국의 싱크탱크 자생체계의 활성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조건과 전략을 찾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포럼] '제1차 그린인프라 포럼 워크숍' 개최(7.27):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철도물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7.28):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관계기관 합동워크숍 개최(7.29):국토연구원 031-380-0114

◆[포럼] '<제3차 가족보육정책 포럼> 미혼모 자립지원의 주요 쟁점과 해법' 개최(7.30):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행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연구' 간담회 개최(7.30):국토연구원 031-380-0114

◆[포럼] '제1차 그린인프라 포럼 워크숍' 개최(7.27):국토연구원 031-380-0114◆
[행사] '철도물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7.28):한국교통연구원 031-910-
3114◆[행사]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관계기관 합동워크숍 개최(7.29):
국토연구원 031-380-0114◆[포럼] '<제3차 가족보육정책 포럼> 미혼모 자립지원의
주요 쟁점과 해법' 개최(7.30):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행사] '제4차 국
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연구' 간담회 개최(7.30):국토연구원 031-380-0114



걷고 싶고 살고 싶은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부평구



걷고 싶고 살고 싶은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부평구 지역 특 성

- ▶ GM대우, 우림라이온스 벨리 등 첨단 및 유통서비스 산업의 도시
 - ▶ 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 삼산월드체육관의 수준높은 문화체육예술의 도시
 - ▶ 생태하천 굴포천이 흐르고 인천 생태 숲이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도시
 - ▶ 경인철 서울지하철호선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가 관통하는 수도권역의 관문도시
- ※ 富平의 한자어 뜻은 현대인이라면 모두가 바라는 '부(富)와 평화, 평온함이 넘치는 고장이라는 뜻이다.

2002년 월드컵 부평고 출신 3인의 전사



2002년 월드컵 때 기간 내내 전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이나 학교, 공원 등 응원할 장소만 있으면 TV등을 설치하고 함께 모여 대한민국~ 을 한목소리로 응원하던 그 시절. 길거리 응원이 세계속에 울려 퍼졌을 때 온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4강 신화를 일궈낸 태극전사 중 김남일, 이천수, 최태욱 선수가 부평의 축구 명문, 부평고 출신이다.

흰뺨검둥오리가 빌딩 숲 사이를 나는 생태하천 굴포천



총 예산 451억원이 투입되어 2008. 10월에 완공된 생태하천 굴포천은 조성전에는 생활하수와 공단 등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로 인해 인천에서도 악취로 유명한 오염의 대명사였으나 조성 공사가 끝난 현재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흰뺨검둥오리가 찾아와 도심의 빌딩 숲 사이를 나는 멋진 풍경을 연출하기도 하고, 어른 팔뚝만한 잉어와 붕어 등이 수백마리씩 찾아와 이곳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자연경도로 조성, 생태 테마공원 조성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가꾸어 나감으로써 부평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으며, 부평구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굴포천 녹색문화회랑> 조성사업으로 참가해 올해 전국에서 7.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 됨으로써 국비15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기후변화 체험관 조성 등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 휴식처 겸 청소년의 생태학습장 강수산 인천생태숲





부평구 청천동 장수산에 조성되고 있는 인천 생태숲은 2005년 공사에 착공해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 숲은 장수산 동서쪽에 위치한 계곡을 중심으로 18만㎡에 생물다양성 체험존, 계곡생태 체험존, 숲 생태복원존의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조성 중이며, 각종 생태계복원기법을 도입해 산림 관찰원, 나비생태관 등도 있다. 다양한 화초와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쾌적한 산책로, 나비, 잠자리, 장수풍뎅이, 하늘소 등 각종 곤충이 표본 전시된 학습관도 있어 청소년과 부모가 손잡고 소풍겸 생태교육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앞으로 굴포천과 이 장수산 생태 숲을 구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거리로 연결하여 생태하천과 숲을 동시에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나갈 예정이다.

구민을 문화예술의 향연으로 유혹하는 문화사랑방

남궁옥분, 유심초, 진사문, 소리새, 이윽복같은 대중가수들의 노래와 클래식 공연, 연극과 뮤지컬 등이 1년 내내 내집 가까이에서 공연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고향을 떠나와 화석빛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작은 소망이라 할 것이다. 부평구 갈산2동과 부개1동에는 실제로 이들의 공연이 열렸던 문화사랑방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부평구민들은 내 집 가까이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유명 가수나 배우의 공연을 향유하고 있는 문화 선진시민이기도 하다.



인천부평풍물대축제

부평구에서 주최하고 부평구축제위원회가 주관하며, 부평역 앞의 부평로와 신트리공원 등 부평구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 내용은 창작 풍물대전, 전국학생풍물경연대회 등 경연대회, 전통민속놀이 재현, '두레풍장' 위주의 중요무형문화제 초청공연, 해외 초청공연, 퓨전음악페스티벌, 풍물퍼레이드, 국악한마당, 시민들이 직접 풍물과 전통놀이를 체험해보는 체험놀이마당 등으로 꾸며져 있다. 올해로 벌써 13회째 열렸으며,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된바 있다.



삼산월드체육관



부평구 삼산동 458-1에 자리잡은 지상3층, 지하2층의 현대식 실내체육관으로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전지랜드블랙슬래머의 홈구장이기도 해서 농구경기가 많이 열린다. 조용필 콘서트를 비롯해 유명한 가수들의 빅 콘서트도 자주 열리며 인천시와 부평구의 중요한 행사가 년중 개최되는 명소이기도 하다.

부평아트센터



부평아트센터는 올 12월에 건립이 완료되고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으로, 부평아트센터는 경인전철 백운역에서 약 150여미터 인근인 부평구 십정동 186-411번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900석의 대공연장과 350석의 풍물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장,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의 불모지였던 부평에 공연 및 전시, 교육 등 수준높은 문화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해물탕 거리

부평해물탕거리는 부평구 부평5동 522의 6 일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부평시장 로터리에서 부흥 파출소 쪽 간선도로 250m 사이에 약 12개 업소의 해물탕 전문점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원래 하천부자인 이곳에 80년대 초부터 해물 모듬찌개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들이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하여 오늘에 명소 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부평구에서는 지난 95년에 해물탕 거리로 지정하여 인천시 특색음식 거리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는 명소다.



문화의 거리

롯데 백화점 입구에서 시장로터리 사이 250m 구간 인근이다. 최근에서 가장 큰 이국세상도 화인하는 부평가톨릭가톨릭가톨릭



민간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한 부평구는 다양한 문화·예술·스포츠 행사와 공연이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청소년들의 춤과 노래, 비보이 공연이
 수시로 열리는 중앙무대를 비롯해, 본수대 등이 있다.



중국 후루다오시와 청소년 국제교류

부평구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후루다오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는 물론
 2008년부터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방학기간중 상호 교류를 통하여
 상대국의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을
 배양하여 한국을 알리는 민간사절로써의 역할과 글로벌 리더로써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양 도시 학생들이 각각 20명씩 40명이 상호 홈-스테이를 하며 교류했다.

熱烈歡迎韓國富平區青少年友好代表團



부평구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후루다오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는 물론
 2008년부터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 방학기간중 상호 교류를 통하여
 상대국의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을
 배양하여 한국을 알리는 민간사절로써의 역할과 글로벌 리더로써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양 도시 학생들이 각각 20명씩 40명이 상호 홈-스테이를 하며 교류
 했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9년 7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중국 서부 지역의 중심 "충칭(重慶)"

동북아·물류연구실 장윤정 책임연구원

중국 서부 지역의 중심 "충칭(重慶)"

■ 충칭시 개요



충칭은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중국 서부지역의 중요한 관문이자 중국의 역사문화로 유명한 도시이다. 즉, 충칭은 강강 상류 지역의 경제 중심으로써 내륙의 현대 제조업 기지이자 중국 서남 지역의 종합 교통 중심지, 도시와 농촌을 총괄하는 대도시라 할 수 있다. 충칭 시는 산을 따라 건설된 도시로 "산간도시"라 불리며, 겨울과 봄에는 비가 적고 안개가 많다 하여 "안개도시"로도 불린다.

1997년 3월 14일 제8회 전국인민 대표 대회 5차 회의에서 네 번째 직할시로 지정된 중국 중서부 지역의 유일한 직할시이며, 2007년에 선전, 상하이 푸둥, 텐진 빈하이신구에 이어 4번째 국가급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도농(都農)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역이다. 현재 19개 구, 17개 현, 4개의 민족자치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구 3,200만 명으로 중국에서 행정관리지역이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특대형 도시이다.

■ 문화·관광도시





충칭시는 30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의 발상지로, 1189년부터 현재의 충칭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으며 사천문화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3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충칭은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산, 물, 숲, 온천, 폭포, 협곡, 동굴 등이 하나로 집결 되어있고 빠위(巴渝)문화, 민족문화, 이민문화, 삼협문화, 도시문화 등 다양한 문화경관이 녹아 있다. 시 전체에 자연·인문관광명소가 300여 곳에 달하며, 그 중에는 세계 문화유산 1개, 전국 중점 문화재 13개, 국가 중점 풍경 명승지 6개가 있다.

특히 기원전 10세기경 빠인(巴人)이라 불리는 원주민들이 중원과 다른 독자적 문화를 형성했던 곳으로, 사천극(변경, 분화, 빠극, 위극), 부두문화, 촉수(蜀绣, 사천에서 만들어진 자수), 용문진(龙门阵), 사천요리 등 고유의 빠위(巴渝)문화에서 비롯된 사천문화는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로도 손꼽히고 있다.

■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점



충칭은 중국 서부 지역의 중요한 경제 성장점이자 중국 6대 공업 기지 중 하나로 서부지역의 경제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신 중국 건립 후, 충칭은 주요

기계공업기지, 의약 공업기지, 종합화학공업기지, 계측설비기지(상해에 이어 2위)가 되었으며, 1976년 국가 투자를 받아 자동차(장안그룹은 중국 자동차 분야에서 4번째 차지), 오토바이(2006년 한해 생산대수는 800만대)의 주요 생산기지이자 중국 최대 무기 생산기지로 부상하였다. 특히 자동차와 오토바이 위주의 기계공업과 천연가스 화학, 의약 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화학공업 등 중공업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조업과 IT분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서부지역의 금융중심



충칭은 또한 중국서부의 중요한 금융 중심지로서, 현재 미국의 리버티(Liberty) 보험, 매트라이프(Metlife), 중신 대동방 생명보험 등 3 개의 대형 외국계 보험사가

들어와 있으며, 리버티社は 중국본부를 충칭에 설립하는 등 북경, 상해, 심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외국계 보험사가 진출한 지역이다. 그 외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은행, 신련(新聯)상업은행, 씨티은행, 동아(東亞)은행, 네덜란드은행, 스탠다드 차터드은행, 스미토모미쓰이은행 등 외자은행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중부와 서부를 잇는 교통도시

충칭은 중국 중부와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관문 지역으로 철도, 수로, 도로, 항공, 파이프라인 수송 등 양 지역을 여러 운송 수단으로 연계하는 교통과 운송의 요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역 공공 교통체계도 잘 발달하여 버스, 모노레일, 수심터널, 케이블카, 페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해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와 전동차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충칭은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중국 서부지역의 중요한 관문이자 중국의 역사·문화로 유명한 도시이다. 즉, 충칭은 장강 상류 지역의 경제 중심으로써 내륙의 현대 제조업 기지이자 중국 서남 지역의 종합 교통 중심지, 도시와 농촌을 총괄하는 대도시라 할

수 있다. 충칭 시는 산을 따라 건설된 도시로 “산간도시”라 불리며, 겨울과 봄에는 비가 적고 안개가 많다 하여 “안개도시”로도 불린다.

인천지역 해공(Sea&Air)복합운송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1년 이후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산업화와 교역규모 확대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모델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각 국가간 물류거점 선정을 위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음

○ 특히, 장래 항공수요 예측을 고려한 중국 공항의 물류시설 과부족이 예상되어 항공물류 인프라 확충과 경제성장에 따른 화물수요 증가사이에 불균형 발생과 매년 넘쳐나는 미주 또는 구주발 중국동북부 지역의 항공물동량을 모두 처리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 이는 인천이 해공복합(Sea & Air)운송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 이에 인천지역의 해공복합운송의 물동량 창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미래전망과 함께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물동량 현황 및 추이분석

○ 지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장 당시 1만 6,760톤에 불과한 해공복합운송 화물이 5년이 지난 2006년에는 2.7배인 45,680톤으로 늘어남

○ 이 기간 물동량은 22.21% 증가하였고, 연간 증가율은 2002년 49.03%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06년에는 전년대비 1.63%의 성장에 그침

〈표〉 해공복합운송 화물 물동량 추이

(단위 : 톤)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물동량	16,760	24,977	33,436	39,783	44,946	45,680
증가율	-	49.03%	33.87%	18.98%	12.98%	1.63%

■ 인천지역 해공복합운송의 가격/시간 경쟁력 분석

○ 해공복합운송의 가격경쟁력 분석의 경우 청도출발 미주도착 항공화물의 경우 구간별 운임은 1.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경유, 2. 청도공항 상해공항 미주, 3. 청도공항 북경공항 미주, 4. 청도공항 인천국제공항 미주의 순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공복합운송의 시간경쟁력 분석의 경우 경쟁가능한 모든 노선들의 운송시간을 검토하였을 때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중국발 해공복합운송의 운임은 Air & Air운송 중 상해직항 및 중국공항출발 인천공항 경유하는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지역 해공복합운송의 가격/시간 경쟁력 분석

○ 향후 인천지역 해공복합운송화물 창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투자보다는 서비스 및 프로세스,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단기적인 개선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중점개선요인과 프로세스별 문제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 측면에서의 중점 개선과제는 "해공복합운송 화물취급 차량들의 통관서비스 개선",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인센티브 제공", "보세운송절차의 간소화"로 나타남

- "해공복합운송 화물취급 차량들의 통관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트럭운행표, 수출입신고필증 등 주보서르점화 가격의 증가는 거가 하라 민 오저자 출이구 시사정리아 세과트러보이 화이정화 드이

생략 및 간소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함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는 현 향후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하고 해공복합운송 이용 가능 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 및 대면접촉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함

- "보세운송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항만내 보세구역 반입시 직반입을 통해 신고절차를 줄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CIQ기관의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세관 검사 및 신고시 중복절차를 폐지하고 경유화물에 대한 신고절차는 생략하는 방안의 검토와 보안검사 시 세관검사 및 신고로 대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림〉 RFS의 개념과 인천항내 카페리 직하차



자료 : Korea-China RFS SERVICE, 인천국제공항공사 허브전략팀, 2008

2001년 이후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산업화와 교역규모 확대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모델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각 국가간 물류거점 선정을 위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장래 항공수요 예측을 고려한 중국 공항의 물류시설 과부족이 예상되어 항공물류 인프라 확충과 경제성장에 따른 화물수요 증가사이에 불균형 발생과 매년 넘쳐나는 미주 또는 구주발 중국동북부 지역의 항공물동량을 처리하기에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인천이 해공복합(Sea & Air)운송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남·북·중 산업협력에 있어서 인천의 역할

I. 연구개요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샌드위치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 인천의 산업구조고도화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중국과 북한과의 투자·무역 등 산업협력의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한국은 시장대국지위를 이용하여 외자를 끌어들이므로써 개방된 글로벌 혁신체제를 수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핵심응용기술을 유지하면서 해외투자를 통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 한국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투자협력 국제화를 통한 산업구조고도화가 필요함. 이러한 시각에서 중국, 북한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 연구의 목적

- 인천의 글로벌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북아지역의 상황분석을 제공함.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거점지역과의 협력방안을 고려함.
- 북한 변화 및 북·중 관계를 검토하여 남·북·중의 산업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

II. 남·북·중 협력가능성 및 시사점

■ 중국위상 변화 속에서 주목해야할 시사점: R&D거점 경쟁

○ 향후 중국(인도 포함)이 과학기술 R&D 등 아시아 지식창조 거점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됨, 저출산고령사회인 선진국들간에 중국, 인도 등을 상대로 글로벌 인재유치경쟁이 격화될 것임.

○ 한국은 가치사슬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R&D, 설계, 유통 등의 분야에서 지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글로벌 R&D센터 유치 등 글로벌 혁신체제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함.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FTA의 조기실시임.

○ 인천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임무를 지닌 경제자유구역에 향후 선진권의 R&D센터, 지역본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북한 변화 및 남·북·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

○ 북한의 경제개선 및 산업재건은 국제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이나, 북중간 무역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북한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중국도 종래와 같은 양적인 성장패턴을 전환하면서 격심한 가격경쟁에 처한 분야는 투자기전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전기·전자와 같이 제품의 표준화(모듈화) 수준이 높은 산업의 품목들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최적생산지가 분산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전자는 북한의 투자유치 및 수출산업화의 주요 품목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한중간 가치사슬과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3자간 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에 섬유산업(방직, 장직, 어패럴)에서는 중국에서 일체형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력산업으로 북한의 중국 중심의 국제분업에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는 품목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같은 산업에서는 남북간 협력네트워크가 남북 양측에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임.

III. 정책건의

■ 인천의 역할 정리

〈표 1〉 글로벌 코리아 달성을 위한 인천의 역할 정리

	① 글로벌 통상도시 인천	②동아시아 글로벌R&D센터	③인천산업단지 (개성공단협력단지 포함)	④동아시아 기술거래소, 금융중심지
담당	인천시	IFEZ	인천산업단지공사 남북경제협력특구 (강화)	IFEZ
성격 및 업무	전략연구기능 포함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평가 -인천기업 브랜드화 (글로벌기업 육성지원) -기업의 국제화지원	- 세계 유수 기술 R&D 연구실 유치, 단지화 - R&D 클러스터 수립	- 인천-개성 산업협력 및 국제업무회 지원 - 북한 기술학습 지원 - 북한 기업 상품 유통 지원	- 국제기술기업 M&A - 선진기술 구입 - 동아시아 기업에 매력 적임
필요성 및 현수진 단계	글로벌 도시, 특히 ②③④ 기능 구축을 위해 가장 선 행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 이나 현재까지는 논의가 없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목표도 이미 설정되어 추진 중인 단계임.	인천발전비전의 하나로 강화를 중심으로 개성연 계사업이 이미 제시되어 있고 중앙정부도 인지도 고 있는 상황임	인천이 교육과학의 허브, 금융중심지 기능이 구축 되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 현재 가능성에 공감 힘든 상황임

■ IFEZ와 개성공단 연계 산업협력지구 및 글로벌통상전략 수립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활용 및 글로벌 R&D거점 구축(IFEZ)

-중국 및 북한을 활용한 글로벌생산네트워크(GPN) 확대는 우리산업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양방향 국제직접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일본과 경쟁하는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임.

-글로벌 가치사슬 중 핵심기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선진권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선진기업과의 협력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미 FTA 등 선진권과의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 역할의 담당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뿐임.

-현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처럼 외국의 교육기관과 R&D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과학기술 허브로 되려는 구상을 구현해야 함(〈표 1〉의 ② 참조). 또 이는 중국에는 동아시아 기술거래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표 1〉의 ④ 참조)

○ 남북간 산업 협력에 있어 향후 개성공단 등 인천과의 클러스터 연계 강화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인천산업단지관리공사 설립시 개성공단 협력산업단지를 사전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표 1〉의 ③ 참조).

-개성공단과 IFEZ는 현재로서는 서로 기능과 니즈가 서로 상충함. 따라서 중간 수준에서 이를 연계하면서 개성공단의 업그레이드를 주목적으로 지원하는 협력단지가 필요.

-초기에 이의 역할은 주로 남북물류연계 기능을 하는 저장창고 등 물류센터와 더불어 대북한 기술이전 및 북한 노동자, 기술자의 교육기능이 추가 될 것이며, 이후에는 자금, 기술 연계의 거점으로 발전하면서 고차원화될 것임.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개성과의 연육이 쉬운 강화가 적지일 것임.

○ 글로벌 통상전략 기능 수립

-궁극적으로 이 협력단지도 인천과 한국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선진기업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IFEZ와 협력하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 기술협력 거점, 금융중심 등 기능을 촉진하게 될 것임.

-이 같은 초기에 분리된 기능이 각각 인천지역경제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며, 또 단계별로 진행경과 및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뒤에 조정하여 재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 모든 것은 투자의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수립된 통상전략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 즉 국제직접투자를 양방향적으로 진정 글로벌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시각에서 한국의 산업구조고도화라는 관점에 선 전략방향 제시와 평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투자유치부문, 남북간 산업협력부문, 지역산업 및 경제의 실행을 조정·지원하는 것이 필요함(〈표 1〉의 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샌드위치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 인천의 산업구조고도화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중국과 북한과의 투자·무역 등 산업협력의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한국은 시장대국지위를 이용하여 외자를 끌어들이므로써 개방된 글로벌 혁신체제를 수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핵심응용기술을 유지하면서 해외투자를 통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로 되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 한국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투자협력 국제화를 통한 산업구조고도화가 필요함. 이러한 시각에서 중국, 북한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7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중국 공항&항만 연계 관련 지표

1. 인천-중국간 네트워크 현황

■ 카페리항로

○ 인천을 기항하는 카페리항로는 2007년 현재 10개항로가 있으며 모두 대중국항로이다.

〈표 1〉 인천-중국간 카페리 정기항로

터미널	선사	취항연도	출발 - 도착	주당항차
제1국제 터미널	단동해운	1998.7	인천 - 단동	주3회
	대인해리	1995.1	인천 - 대련	#
	범영해리	2003.1	인천 - 영구	주2회
	진인해운	2004.4	인천 - 진황도	#
	한중해리	2000.10	인천 - 연태	주3회
	화동해운	2002.7	인천 - 석도	#
제2국제 터미널	연운항 해리	2004.2	인천 - 연운항	주2회
	위동해운	1993.5	인천 - 청도	주3회
	위동해운	1990.9	인천 - 위해	#
	진천해운	1991.12	인천 - 천진	주2회

자료: 인천항사(2008)

■ 정기컨테이너항로

○ 2007년 인천-중국간 정기컨테이너항로는 14개 항로가 있으며, 이외 중국항을 경유하는 인천-동남아 정기컨테이너 항로도 새롭게 꾸준히 개설되는 추세이다.

〈표 2〉 2006년, 2007년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비교

선사	선명	운항항로	기항주기
중국해운	XIANG YING	인천-대련	주2회
	XIANG DA	인천-대산-상해	주1회
	XIANG PENG	인천-닝보-상해	#
STX, PAN OCEAN	XIN HA DA	인천-청도	주2회
HS LINE	SINOKOR INCHEON	인천-위해	주3회
COSCO	PRETTY RIPPLE	인천-평택-연태	주2회
진천해운	TIAN YAN	인천-천진	주1회
두우해운	MING YU	인천-단동	주2회
동영해운	DAN JIANg	인천-상해	주1회
범주해운	JIPA DONGHAI	인천-닝보-상해	주1회
CSC LINE	X-PRESS SINGAPORE	인천-상해-닝보	주1회
고려해운	SUNNY CEDAR	인천-상해-닝보	주1회
	CAPE CHARLS	인천-대련-청도-부산-광양-인천	주1회
머스크 라인	ASTOR	인천-광양-상해	주1회

자료: 인천항사(2008)

■ 항공운항 네트워크

○ 인천국제공항은 69개의 취항항공사, 51개국, 162개공항과의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다(2007년 기준)

○ 특히, 중국지역 35개 공항과의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으며 여객기는 주당 1,320회, 화물편은 주당 190회 취항하고 있다.

〈표 3〉 인천공항-중국공항간 네트워크 현황

여객기	화물편
-----	-----

1320flights/ week	190flights/week			
취항 중국공항				
BJS	CAN	CGO	CGQ	CKG
CSX	CTU	DDG	DLC	HET
HGH	HKG	HRB	KMG	KWL
MDG	MFM	NGB	NKG	SHA
SHE	SIA	SYX	SZX	TAO
TNA	TSN	TXN	URC	WEH
WUH	XMN	YNJ	YNT	YNZ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2007년 기준)

2. 인천~중국간 공-항만간 연계 수송실적

■ 인천~중국항만간 수송실적

○ 중국주요항만과 인천항과의 수출입컨테이너화물 교역량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약 67만TEU에서 2007년에 110만TEU로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물동량에서 중국물동량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5년 58%, 2006년 64%로, 2007년도에는 6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인천항과 중국 주요항만과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물동량을 교역하고 있는 청도의 경우 2005년도에는 전년대비 34.6%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43.5%, 2007년도에는 21.5%증가율을 나타내었다. 2007년 상해와의 교역에서는 전년대비 95.6%를 기록하여 166,725TEU로 청도항 다음으로 많은 물동량을 나타내었다.

〈표4〉 중국-인천 컨테이너화물 교역량

구분	2005	2006	2007
화물량(톤)	11,024,007	14,084,728	16,666,999
TEU	665,081	876,988	1,093,158

〈표5〉 중국 주요항만-인천간 컨테이너화물 교역량

구분	(단위: TEU, %)					
	2005년		2006년		2007년	
	총 TEU	증감률	총 TEU	증감률	총 TEU	증감률
QINGTAO	119,131	34.60%	170,973	43.50%	207,737	21.50%
SHANGHAI	69,284	26.50%	85,236	23.00%	166,725	95.60%
WEIHAI	90,341	30.20%	115,956	28.40%	122,304	5.50%
TIANJINXINGANG	51,276	142.90%	73,614	43.60%	92,868	26.20%
YANTAI	77,886	110.00%	89,351	14.70%	83,776	-6.20%
Others	254,478	41.80%	338,109	32.90%	415,273	22.80%

자료: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연보(2007)

주: 공컨테이너 제외

■ 인천공항~중국공항간 수송실적

○ 인천공항과 중국공항간 수송실적을 살펴보면 인천공항 개장 당시인 2001년 운항대수는 20,251대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72,794대로 약 3.6배 증가하였다.

○ 또한 여객 수는 2001년 대비 2008년 약 2.6배, 항공화물은 약 3.5배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 반면에 여객탑승을 취항항공사의 증가로 인한 운항대수 증가에 따른 수송용량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6〉 인천~중국간 항공수송실적 추이

년도	운항(대)	여객수(명)	항공화물(톤)	여객탑승율
2001	20,251	3,156,619	180,602	69.30%
2002	30,924	4,734,307	280,827	68.60%
2003	29,986	4,187,938	339,517	61.60%
2004	38,303	5,712,056	410,856	66.10%
2005	45,125	6,862,354	464,823	69.20%
2006	57,036	7,618,030	524,112	64.30%
2007	75,993	9,372,252	624,008	63.90%
2008	72,794	8,162,181	623,588	61.00%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3. Sea & Air 화물량

○ Road Feeder Service(RFS)는 트럭운송과 카페리 그리고 항공을 결합한 복합운송 시스템(Sea & Air)으로 중국과 한국을 하나의 육상교통권으로 묶는 획기적인 서비스이다.(중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이 대부분)

○ 현재 중국 청도항~인천공항 간 RFS 운영중이며 향후 중국 위해 및 대련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글로벌 포워더를 포함한 약 20여개 포워더가 FR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장 당시 16,760톤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3.6배인 61,006톤으로 급성장하였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복합운송 물동량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 성장률이 주춤했던 반면 2008년 전년대비 31.33%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였다.

〈표7〉 인천-중국간 Sea & Air 물동량 추이

(단 위:톤)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물 동량	16,760	24,977	33,436	39,783	44,946	45,680	46,450	61,006
증가율	-	49.03%	33.87%	18.98%	12.98%	1.63%	1.68%	31.33%

자료: 인천항만공사 내부자료

4. 인천-중국간 카페리 물동량 추이

○ 인천항과 북중국항만간 현재 10개의 카페리항로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물동량 추이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연평균 11.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 특히, 2008년 기준 가장 많은 물동량을 나타낸 항로는 위해>청도>연운항>석도 등의 순이며, 그 중 인천-석도항의 경우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55.2%로 급성장함.

○ 인천-진황도항의 경우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91.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8〉 인천-중국간 카페리 물동량 추이

(단 위:TEU)										
항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인천/위해	35,105	41,949	46,405	42,579	39,661	46,670	48,008	47,431	47,393	3.8%
인천/청도	37,284	37,136	38,104	34,329	33,872	40,793	47,202	50,043	44,618	2.3%
인천/천진	19,750	19,132	22,411	22,939	23,195	25,316	30,681	34,046	31,058	5.8%
인천/대련	18,323	17,368	19,139	17,919	17,351	20,637	21,678	23,363	20,395	1.3%
인천/단풍	8,786	10,115	15,428	16,124	16,664	17,560	18,629	19,026	18,040	9.4%
인천/상해	5,832	8,205	1,253							
인천/연태	0	6,445	11,784	17,613	23,284	27,786	31,534	34,887	33,107	26.3%
인천/석도			2,313	18,196	21,709	27,895	32,787	32,738	33,581	56.2%
인천/영구			0	3,228	9,000	15,554	15,488	14,916	10,811	27.3%
인천/진황도			0	0	1,048	4,334	7,485	12,923	13,996	91.2%
인천/연운항			0	0		21,011	33,972	44,092	38,270	22.1%
계	125,080	140,350	156,837	172,927	185,784	247,555	287,464	313,465	291,269	11.1%

※ 공컨테이너 미포함
자료: 항해객을선사협의회 내부자료

참고문헌

부산발전연구원 2008 항만공항물류자료집

항해객화선사협의회 내부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역별 항공통계

인천항만공사 내부자료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연보(2007)

-인천을 기항하는 카페리항로는 2007년 현재 10개항로가 있으며 모두 대중국항로이다.-2007년 인천-중국간 정기컨테이너항로는 14개 항로가 있으며, 이외 중국항을 경유하는 인천-동남아 정기컨테이너 항로도 새롭게 꾸준히 개설되는 추세이다.